

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 돌입

6·3 지방선거 D-86

19-20일 당원 100% 예비경선 3명 컷오프
내달 3-5일 본경선 당원 50%+여론 50%
과반 득표 없을 경우 12-14일 '결선투표'
'환영' vs '유감'...후보간 입장차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과 일정을 확정하면서 약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방식과 일정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을 100% 당원 경선으로 치르고 5명으로 압축한 본경선은 당원 50%·국민참여(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에 제안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 방식이지만 여러 차례 시도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의결권을 갖는 배심원 방식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최고위가 판단해 정책배심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배심원은 별도의 투표권은 없으며 권역별 순회 토론과 연설회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경선 기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북부·동부·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매화마을의 '봄' 광양매화축제 개막을 5일 앞둔 8일 오전 광양시 다암면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색의 매화에 출렁이듯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13일 개막해 22일까지 열린다. /조영권 기자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 일정과 진행 순서를 추천 등을 통해 결정하고 순회 투표 방식 대신 순회 연설과 토론을 중심으로 후보 검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표 방식은 예비경선의 경우 온라인 당원 투표로 약 이틀간 진행되며 본경선에서는 온라인 투표와 함께 ARS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방식의 안심번호 선거운동 투표가 병행될 예정이다. 투표 기간은 약 3일로 계획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약 1주일간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약 2주에 걸친 본경선 기간을 거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7일간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한 달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별 경선 일정도 확정했다.

오는 19-20일 예비경선에서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4월 3-5일 본경선을 치른다. 결선 일정은 4월 12-14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대체적인 경선 방향을 확정할 만큼, 구체적인 경선 운영과 방식은

향후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불안 요소가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보다 경선 기간 동안 차분하게 검증하고 토론하며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것이 최고위 판단"이라며 "정책 검증은 중심으로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주도할 리더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경선 방식 결정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변은진 기자

최저 기온 영하권 당분간 꽃샘추위

낮 최고는 16도까지...큰 일교차

광주·전남은 이번 주에도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광주·전남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2도, 최고기온은 영상 7-11도로 예보됐다.

이날 목포·진도·신안·흑산도·광양·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정오 전·후로 전남 북부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10일에는 목포와 신안, 광양지역 최저기온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전날보다 춥겠지만, 11일은 최저·최고기온은 모두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곡성은 최저기온이 영하 2도로 가장 춥겠고, 나머지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를 기록하겠다. 최고기온은 영상 9-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휴일 최저·최고기온은 평년(0-5도, 11-16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번 주말·휴일까지 비나 눈 소식은 아직 없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들겠다"며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었던 땅이 녹겠다"며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 토사 유출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슈퍼스타' 김도영 활약 빛났다

대만전 패배 불구 중요한 순간 '이름값'
"남은 호주와 경기 더 집중하겠다" 다짐

한국 야구가 대만에 또 발목을 잡혔지만 슈퍼스타 김도영(KIA)의 활약은 빛났다.

한국대표팀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3차전 대만과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차기 끝에 4대5로 패했다. 1차전 체코에 대승을 거둔 후 일본과 대만에 털미가

잡힌 한국은 1승 2패로 8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관련기사 16면

전날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명승부 끝에 6대8로 패한 한국은 12시간 만에 나선 대만전에서 류현진(한화)이 2회 좌우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0-1로 뒤졌다. 한국은 5회말 1-1 동점을 만들었지만 6회초 곡빈(두산)이 정중자에게 솔로포를 맞으며 다시 1-2로 밀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김도영이 이름값을 했다. 앞선 타석에서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던 김

도영은 이날 세번째 타석에서 통쾌한 투런포를 터뜨리며 결정적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렸다.

한국은 3-2로 앞서던 8회초 2사 2루에서 데닝 더닝이 2점 홈런을 얻어맞고 역전을 허용했다.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으나, 다행히 8회말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다. 동점타의 주인공은 김도영이었다. 2사 이후 김혜성의 볼넷에 이어 김도영이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높은 직구를 때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리는 큼직한 2루타를 날렸다. 발 빠른 김혜성이 홈으로 들어오며 4-4 동점이 됐다.

김도영은 6회말 역전 홈런에 이어 결정적인 2루타가 또 한번 팀을 구해낸 순간이었다.

이날 4안타에 그친 한국에서 김도영은 4타수 2안타(1홈런) 3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대표팀 공격을 사실상 이끌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도영은 "진 것에 대해서 너무 화나고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9일 호주와의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백희중 기자

Today	
'시민배심원제' 미도입 후보간 입장차	4면
LH '300억 통합발주' 중소 건설사 반발	13면
시범경기 12일 시작...KIA-kt(광주)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봉선동, 남구청)

위치
[Map showing location at the intersection of Bongseon-ro and Jongsan-daemun-ro]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시뮬레이션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CMYK